



김기빈 | 한국토지공사 지명연구위원 /
중앙지역위원회 위원(ddangkkb@hanmail.net)

남북한의 두 압록강(鴨綠江), 그리고 회군강(回軍江)과 순자강(鶉子江)

1. '압록'의 오리는 사물의 핵심 뜻하는 '울'의 갈래말

썩은 고목(古木) 아래 전각(殿閣)은 비어있고,
파란 못물 위에 비오리 한 자웅(雌雄)이
은 종일 서로 따르며 한가로이 떠돌다.

- 이병기 <봄>

강물과 오리는 서로 친근하고 정겨운 관계로 잘 묘사된다. 그림 속에서도 물위에 한가롭게 떠다니는 오리는 제 깃털이나 다듬고 치장하면서, 물고기 잡아먹는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는 듯 태평하며 여유롭기만 하다.

오리는 강가나 해안, 호수 또는 늪지대에 살지만, 육지에서 도 살 수 있고, 또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하니 천상(天上)과 지상(地上), 그리고 수상(水上)과 지하세계까지 넘나드는 새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마을 수호신인 솟대의 끝에 매달린 새는 대개 오리이고, 또 신라 고분에서 부장품으로 오리가 나오는 것도 오리를 영혼의 운반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오리는 하늘과 지상과 수중을 넘나드는 동물로서 사면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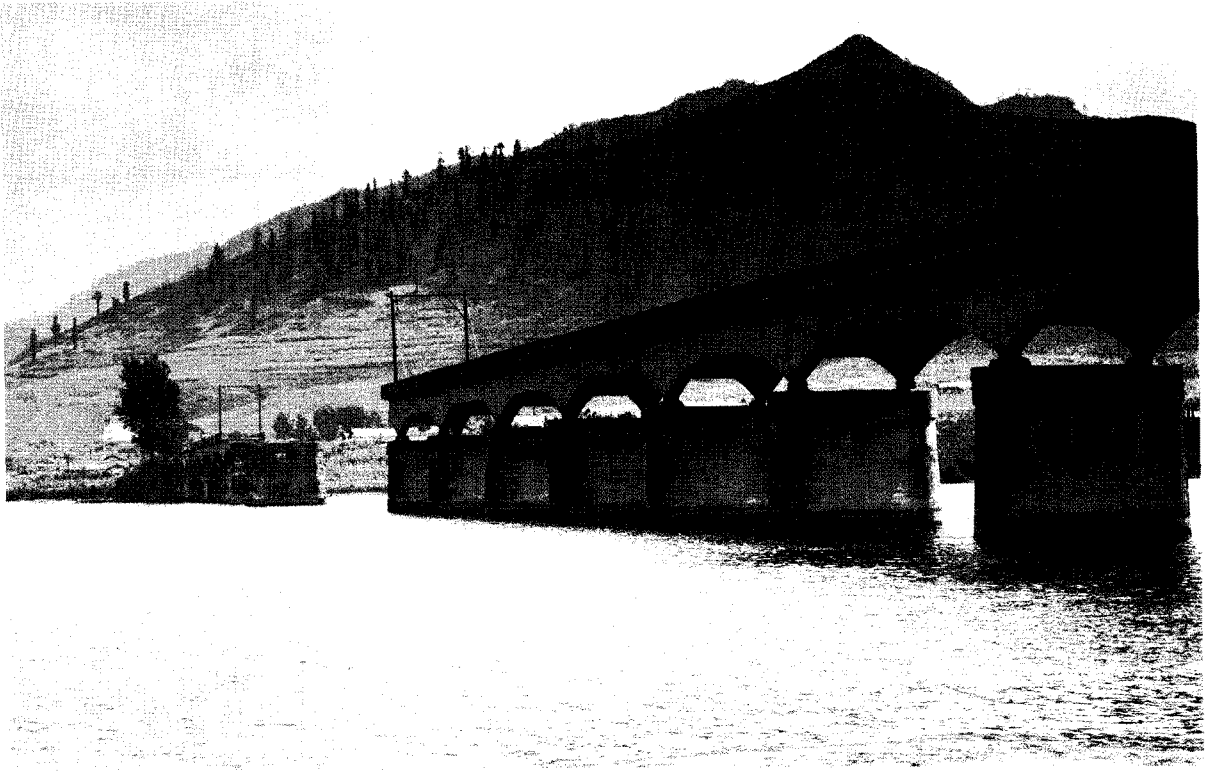
양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전통 혼례식에서 신랑이 나무로 깎아 만든 새를 신부 집에 가지고 가는데, 이 새를 기러기로 보기도 하지 만 한편 오리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오리의 일종인 원앙이 단 하나의 짝에만 애정을 바치며 일생동안 정절을 지키기 때문이다.

오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압록강(鴨綠江)이다. 고구려 시조 주몽(朱蒙)의 어머니 유희(柳花)는 강의 신 하백(河伯)의 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해모수(解慕漱)가 웅신산(熊神山 : 백두산으로 비정됨) 아래 압록변(鴨滌 : 鴨綠邊)에서 그녀를 유혹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주몽이다.¹⁾ 이 사건은 천신(天神)의 자손인 해모수와 수신(水神)의 자손인 유희의 결합에 의한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졸본천(卒本川)에 도읍한 주몽은 먼저 정착한 비류국의 송양과 건국의 선후를 다투게 되며, 주몽은 비류국의 왕도에 7일간 홍수를 내리게 하여 송양을 굴복시킨다. 이 때 주몽은 압마(押馬) - 오리 말을 타고 갈대 줄로 강을 가로질러 백

1) 일연,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구려



성들이 그 줄을 붙들어 살게 한다. 말하자면, 주몽은 자신이 불러들인 홍수라는 대재앙 속에서 오리 말과 갈대 줄을 사용하여 자신과 백성을 살려냄으로써 확실하게 지도자로 군림하게 된다.

강과 오리. 이 오리를 뜻하는 강 이름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국경하천 압록강(鴨綠江)이 있는데, 여기서 '압(鴨)'은 글자 그대로 오리를 나타내며, 한편 똑같은 '압록강'이라는 이름이 섬진강의 또 다른 이름으로도 사용되어 왔다.²⁾

그런데 한강의 옛 이름 중에도 '아리수(阿利水)', '열수(冽水)', '육리하(郁里河)'와 같은 이름들이 있었으니,³⁾ 여기서 강이름에 사용된 아리(알), 오리(울), 우리(울)와 같은 이름은 우리 고어에서 일과 사물의 근본이나 핵심을 일컫었던 말 '울'에서 파생되었으며, 고대 문화가 이 강을 중심으로 그 강변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⁴⁾

그러므로 강 이름에 등장하는 '오리'는 아리, 오리, 우리 등을 나타내는 '울'의 갈래 말이 강 이름으로 정착되면서 후대에 생겨난 이야기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2. 역사의 고소장 같은 국경하천 압록강과 회군강의 시연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는 길이 790km, 2천여 리에 달하는 압록강은 북한의 하천강(虛川江), 장진강(長津江), 후창강(厚昌江) 등을 합하여 중강진에 이른다. 다시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자성강(慈城江), 독로강(禿魯江) 등을 합하고, 수풍호(水豊湖)에 이른다. 수풍에서 만든 바다처럼 거대한 호수는 이름 그대로 '물이 풍성한' 곳이요, 이어서 충만강(忠滿江)과 중국에서 흘러오는 혼강(渾江) 등을 합한다.

하구 가까이에서는 위화도(威化島)를 비롯한 대규모의 범람원을 형성하고, 신의주와 중국의 단둥(丹東) 사이를 지나 용암포(龍岩浦) 서쪽에서 황해로 들어간다.

예로부터 강의 물빛이 오리의 머리(압두鴨頭)처럼 파랗기 때문에 압록강(鴨綠江)이라 불렀다고 하는데⁵⁾ 그 내력은 이

2) 섬진강변의 곡성군 압록리는 그전부터 압록진(津)과 압록원(院)이 있어서 김손의 편의를 보여주었던 곳이며, 마찬가지로 순자강도 역시 강변에 순자진과 순자원이 있었다.

3) 국립지리원, 『지명유래집』, (1987) 129-130쪽

4) 박갑천, 『세계의 지명』 (암선 책, 1995) 77-79쪽

5)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의주목) 483-485쪽

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강 이름으로 압강(鴨江), 청하(靑河), 용만(龍灣), 마자강(馬蹄江), 패강(溟江) 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의주 북쪽에 이르러 강이 세 갈래로 나누어 지는데, 하나는 남으로 흘러 구룡연(九龍淵)을 지나 압록강이 되고, 하나는 서쪽으로 흐르므로 서강(西江)이라 하며, 하나는 그 가운데로 흐르므로 소서강(小西江)이라 한다. 다시 합해진 물은 위화도를 두르고 서쪽으로 흘러 대총강(大撡江)이 되어 황해로 들어간다.

“세상에 전하기를 천하에 세 군데 큰 강이 있으니, 황하(黃河), 장강(양자강), 압록이라 하는데 바로 이것이다.”라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으며, ‘청하’라는 이름도 강물이 파랗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 ‘용만’이란 이름은 옛 의주의 이름이 용만이기도 하지만, 강의 구비 구비가 용틀임처럼 곡선이 심하므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한편 마자강은 마개수(馬蹄水)라고도 하였으며, 마자강의 ‘마’는 남쪽을 뜻하므로, 북쪽에 있는 흑수(黑水)에 대하여 남쪽의 강이란 뜻이고, 패강이란 이름은 중국의 요하도 패강이라 하고 평양의 대동강도 패수라고 하므로 지금까지 명확한 결론이 없다. 한편 중국에서는 압록강을 ‘알루장(압록강)’으로 발음한다.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는 고려 말기에 최영 장군의 요동정벌에 반대한 이성계의 군사가 ‘군사를 되돌려’ 회군한(위화도 회군)의 바로 그 강이요, 그 섬이니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린 강이다. 그래서 북한의 의주군 비현면에 있는 「회군강(回軍江)」은 이성계의 군사가 강을 건너서 되돌아갔음을 나타내는 이름이요, 부근에는 그때 이성계의 군사들이 잠시 말에 물을 먹이고 쉬어갔다는 「행군천(行軍川)」이라는 냇물 이름도 남아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까마득한 옛날 고구려 주몽이 어려서 북부여의 군사들에게 쫓겨 이 강가에 이르렀을 때 “나는 천제(天帝)의 아들이며, 하백의 손자다. 오늘 도망쳐 가는데, 뒤쫓는 자들이 거의 따라오게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이 때 물고기와 자라들이 솟아올라 강에 다리를 만들어 주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동명왕 주몽

설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다시 이곳에서 언급하는가. 압록강의 흐름 자체가 마치 역사의 고소장 같기 때문이다. 고구려 주몽에게 물고기 떼가 다리를 놓아 주었던 강, 이성계의 군사가 말머리를 되돌림으로서 만주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강, 임진왜란으로 쫓겨 온 선조임금이 통곡하였던 강, 북진하던 국군이 수통에 물을 담고 되돌아섰던 강이 바로 압록강이기 때문이다. 이 강가에 서서 바라보면, 아득한 옛 역사와 함께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오늘의 국토 현실이 가슴을 저민다.

3. 가짜 오리로 물고기 잡았던 곡성의 압록강과 순자강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중략)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 몇 애비 없는 후례자식들이
 떠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북녘 땅이 아닌 남녘 전라도에도 압록강(鴨綠江)이 있다. 비록 곡성·구례지방에서만 부르는 이름이요, 하천법상 공식명칭이 아니지만 섬진강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압록강이다.⁶⁾ 국경하천인 압록강과 한문으로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는 이름이니, 이 강도 역시 ‘오리강’이나 ‘아리수’요 ‘아리내’라는 옛 이름을 지녔던 강일 것이다.

압록강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구례군 고달면 일대에서 부르는 이름이며, 순자강(섬진강의 압록리 상류)과 보성강이 만나는 곳을 가리킨다. 섬진강 물줄기 중에서도 경관이 특히 뛰어난 피서지로서 널리 알려진 유원지가 압록강이

6) 곡성군, 『내 고향 전통 가꾸기』, (1981) 8쪽, 148쪽 등

다. 두 강이 만나는 곳이 반달처럼 휘어지면서 널따란 백사장을 이루고 있으며, 맑고 깨끗한 물에서는 은어를 비롯하여 쏘가리, 황어, 참چه, 잉어 등의 민물고기를 잡으려는 천렵꾼과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한편 현지에서는 섬진강을 솟물, 보성강을 암물이라고도 부르는데, 솟물인 섬진강은 물살이 세고, 암물인 보성강은 그 흐름이 완만하기 때문이며,⁷⁾ 보성강이 섬진강(순자강)과 몸을 섞기 전 보성강 위로는 압록철교와 국도 17호선의 반월교(半月橋)가 지난다.

이곳 곡성의 압록강 일대는 특히 청정수역으로서, 민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다.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대개 그물을 쳐놓고 작대기로 물을 때려서 고기를 그물로 몰아넣는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물을 쳐놓고 오리모양의 부유물을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운 채 끌고 가면 물고기들이 진짜 오리인줄 알고 쫓기다가 그물에 잡혔다고 한다. 압록 - 오리라는 그 이름에 맞게 '오리'처럼 생긴 부유물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은 또 무슨 인연이었을까.

한편 이 압록강의 상류가 되는 순자강(鶡子江)은 순강(鶡江)이라고도 한다. 곡성군 압록리에서부터 같은 옥과면 합강리(合江里)까지의 섬진강 상류를 말하며, 순자강이라는 이름도 역시 하천범상 공식 명칭이 아니다.

순자강은 전라북도 남원시와 전라남도 곡성군의 도 경계를 이루고, 곡성읍을 지나서는 구례군 고달면과 군계를 이루는 강인데, 압록리를 지나면, 순자강도 압록강도 아닌 '섬진강'이라는 원래 이름대로 불려진다. 여기서 순자강의 '순(鶡)'은 날짐승인 메추리를 뜻하므로 이것을 풀이하면 '메추라기강'으로 풀이되는데, 그 자세한 유래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

이 강은 섬진강이 남원에서 흘러내린 요천(蓼川)과 수지천(水旨川)을 합하고 곡성읍의 동쪽을 남류하여 압록강이 되는데, 순자강의 순(鶡) - 메추라기의 '메'는 새가 아니라 물(水)을 나타내는 옛 말 '미-메'를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길이 212km의 섬진강은 그동안 이 강 언저리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곳곳에서 강을 개발하고 파냄으로써 강변의 모래사장이 사라지고, 강둑으로 막히고, 시멘트로 발라졌으며, 강물이 썩어가고 물고기가 떠나는 강으로 수난을 겪었다. 그래서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은 '민신창이의 강'이라고 탄식하며 이 강가에서 영영 울고 싶다고 하였던 바로 그 강이다.

중국에서는 옛날 이수(伊水)와 낙수(洛水)의 강물이 마르자 하(夏)나라가 망하였고, 황하의 물이 마르자 상(商)나라가 망하였다고 한다. 본래 나라의 존망은 산천에 의지하는 것인데, 산이 무너지고, 강이 마르는 것을 멸망의 징조라고 보았던 것은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맑은 강을 지키고 산천을 지키는 것은 국도를 지키고 생명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면서 강줄기에 대한 개발이 억제되고, 강의 생태계가 복원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5대강 중에서도 가장 맑은 강이었던 섬진강이 그 이름을 되찾은 것이다.

압록강 - 오리강(혹은 아리수). 여기서 오리(아리) - '알'은 세상만사에 있어서 그 근본이나 핵심을 뜻하듯이, 강이야말로 순리의 상징이며 생명의 원천이요, 인류 생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맑은 강물이 흐르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순환의 질서를 부여하는 대자연의 섭리이다.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

7) 교회사, 『전국여행 수퍼정보』(2006) 113쪽